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59년(서기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제117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혜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135-243)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2014년 제4회 금강경강송대회 전경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개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금강선원은 오는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를 개최합니다. 금강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금강경의 참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 대회는, 고려시대 이후 단절된 경전강송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금강선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보살사상 만일수행결사운동이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 수행수기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는데, 개인전은 금강경 32분 중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된 지정분에 대해 외위쓰기(1부), 심사

위원이 지정한 지정분 암송(2부) 그리고 결선의 순서로 진행되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체전은 도반이나 가족, 직장동료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자유분과 지정분을 3분 이내에 합송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행수기 부문은 개인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겪은 체험담을 사전 접수하여 선정된 우수작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혜거 큰스님께서 “종교는 신앙 이전에 수행이 먼저 되어야 한다. 자기 수행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신앙만 구하다 보면 자신은 물론 세상이 살기 힘든 곳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행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경강송대회는 수행의 생활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얻은 공덕은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회향함으로써 보살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일정**
- ▶ 08:30 입실 완료
 - ▶ 8:30~09:00 식전 의전, 필기 분 공개 추첨
 - ▶ 1교시(09:00~09:50) <개인전> 외위쓰기
 - ▶ 2교시(10:10~12:00) <개인전> 강송(암송)
 - ▶ 점심시간 (12:00~13:00)
 - ▶ 3교시 (13:00~14:10) <단체전> 단체 합송
 - ▶ 4교시 (14:20~15:10) <개인전> 결선
 - ▶ 15:20 이후 : 결과발표 및 시상식 / 수행수기 발표 / 순영의례

제27기 기초참선반 개강

9월 9일(수) 오후 7시

참선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생사의 문턱이 스스로 없어지고 현상계에서 무애자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초참선반은 참선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몸을 조절하며, 그리고 마음을 조절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공부를 금강선원 기초참선반에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9월 9일(수) 오후 7시
- ▶ 장 소 : 금강선원 대법당
- ▶ 수강료 : 20만원(14주간)

제8기 기초한자반 개강

9월 4일(금) 오후 1시

한자의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금강선원 기초한자반이 오는 9월 4일(금) 오후 1시 602호에서 개강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되는 기초한자반은 총 5개월 과정으로서 한자를 보다 쉽게 배우고 익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한자에서 한자 심화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9월 4일(금) 오후 1시
- ▶ 장 소 : 금강선원 602호
- ▶ 수강료 : 10만원(5개월)

금강경독송 집중정진
▶ 일 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밤 7:30~10:30
▶ 장 소 : 대법당

추석 합동 차례

금강선원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합동차례를 지내드립니다. 선원에서 차례를 모시고 싶은 불자님들과 개인적으로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합동차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추석 합동차례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 일 시 : 2015년 9월 27일(일) 오전 10시
- ▶ 장 소 : 금강선원 대법당
- ▶ 동참금 : 20만원

금강선원 신임 임원진 선출,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



지난 8월 18일(화) 오전 10시 대법당에서 2015년 불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불선

(不先)대회는 금강선원의 새로운 1년을 책임질 사무장을 비롯한 신규 임원진 및 단체장 선출과 헤거 큰스님을 비롯한 스님들, 신, 구 임원진 및 부문별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금강선원이 앞으로 나아 갈 발전 방향과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헤거 큰스님께서서는 지난 1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 한 전

임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사람이 모이면 큰 뜻을 하나씩 이루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금강선원이 더욱 발전하려면 개혁하고 혁신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법련화 신임 사무장을 비롯한 신규 임원진과 단체장들에게 금강선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승려연수교육 『임제록』 특강 개설



지난 8월 20일(목) 오후 6시 대법당에서 승려연수교육 『임제록』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금강선원이 조계종 교육인증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2번째로 진행되는 승려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선수행에 있어 가장 뛰어난 지침서인 당나라 임제선사의 설법집 『임제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헤거 큰스님의 특별강의로써 9월 24일(목)까지 총 6회로 진행됩니다.

백중 입재 ‘7일 동안 정성을 다해’



백중을 맞이하여 지난 8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7일 지장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참한 불자들 모두 한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염하며 기도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진행된

법문에서 헤거 큰스님께서서는 목련존자와 효의 전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장보살과 함께 하는 7일이 자신의 업장을 없애는 기간이 되도록 일념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백일동안 일념으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이하여 일념으로 기도하는 100일 간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 4일(화) 오전 9시 20분 6층 기도법당에서 입재한 수능 백일기도는 수험생들의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한 가운데 청비스님의 집전으로 여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수능 백일기도는 11월 11일(수)까지 하루 2번(오전 5시, 9시 20분) 진행됩니다.

청소년참선반, 템플스테이 가다

제10기 청소년 기초참선반은 지난 8월 1일(토)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 보타사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보타사 템플스테이는 사찰 둘러보기, 타종체험, 새벽예불(108배) 및 천상천하유아독존, 차명상, 장기자랑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천상천하유아독존’ 프로그램은 자신이 부처님이 되어 친구들에게 절을 받고 소감을 발표해보는 프로그램으로서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으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 기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단신



2015 청소년 마음등불 ‘10분 집중명상캠프’

8월 11~12일 1박 2일간 2015 청소년 마음등불 ‘10분 집중명상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20여명의 청소년들은 관장님의 좋은 말씀, 명상, 산책,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교육, 각종 분임활동을 하였습니다. 조별활동과 협동심을 키우고, 개개인의 명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캠프를 마쳤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8월 5일부터 19일 까지 Dovol(두볼)-1365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있었습니다. 각 20명씩 40여명의 학생들이 박물관 교육사의 전시 해설과 전시 해설 시나리오를 읽고, 관람하시는 방문객에게 관람안내를 하는 등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또한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박물관의 유리창 청소와 비품들을 정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지난 7월 31일, 서울시의 박물관 사업 지원을 받아 새롭게 단장한 탄허기념박물관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고유의 편리한 기능을 추가하였고 사이버 전시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박물관 소식

- 2015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응답하라1959’
교육기간 : 3월~10월
교육시간 : 화요일~금요일 오전10:00~14:20/오후14:00~16:20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단체 (30명 내외),
※문화가 있는 날은 가족단위 참여가능
신청방법 : <http://www.museumonroad.org>
- 8월03일~8월04일: 성인 명상반 수련
- 8월5,6,11,13,14,15,18,19일: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 활동
- 8월 11~12일: 청소년 명상캠프
- 8월19일:문화가 있는날 작은 음악회 공모 서류 마감
- 8월20일: 민속박물관 협력망 사업 서류 마감
- 연중진행 프로그램
-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관람안내 및 오시는 길

- ▶ 관람시간 10:30~17:00 (입장마감 16:30)
- ▶ 관람료 무료
-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익일, 명절 연휴 휴관)
-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 도보 15분
시내버스 402, 4419, 2412 (쟁골마을 하차)
마을버스 강남03, 강남06, 강남06-1 (쟁골마을 하차)



탄허기념박물관
TANHEO MEMORIAL MUSEUM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 전화 : 02-445-8486 | ▶ 홈페이지 : www.tanheo.org

서 문 (序文)

『원각경 서문』 강설 ⑤



더위가 한창인데도 법회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적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큰 결심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정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심은 자주 하는데 결과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삼복더위도 무릅쓰고 나오셨으니 훌륭한 결과를 얻도록 같이 정진해 봅시다.

方之海印이며 越彼太虛하야 恢恢焉하며 晃晃焉하야 迴出思議之表也로다
이름 해인에 견줄 수 있고 저 태허보다도 더 하여 크고 크며 빛나므로 사의 밖에 멀리 벗어나 있다.

방지해인方之海印이며, 그것을 해인에 비교할 만하고, 여기의 방方은 '비교하다'는 뜻입니다. 해인은 해인삼매를 말하는 데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해인은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으로, 이것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맑아져야 가능합니다. 즉 마음의 모든 탐진치가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월피태허越彼太虛하며, 마음은 저 큰 허공을 넘어서고, 즉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좁은 공간에 있어도 어디든지 아니 다니는 곳이 없어요. 우주 밖에 까지도 넘나들 수 있잖아요.

회회인恢恢焉하야 황황인晃晃焉하야. 마음이 넓고 넓으며 밝고 밝아서, 계속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달음을 얻으면 해보다도 더 크고 밝게 빛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출사의지표야迴出思議之表也로다. 생각하고 계산하는 밖에까지도 멀리 벗어나 있다. 즉 사유하는 마음이 특 터져서 경계가 없어지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비유하건데 마음은 해인과 같이 깨끗하고 저 커다란 허공보다 더 크고, 넓고 넓으며 밝고 밝아서 생각 밖의 멀리까지도 벗어난다는 뜻으로 우리의 본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我佛이 證此하사 愍物의 迷之하사 再嘆奇哉하시며 三思大事하사

부처님께서 이를 증득하시고 중생이 이를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겨 두 차례나 기이하다 탄식하시고 세 차례나 대사를 생각하셨다

아불我佛이 증득證此하사. 우리 부처님께서 이것을 증득하셔서, 깨닫는 것과 증득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깊게 사유하고 연구해서 알아지는 것으로 이럴 때는 각覺을 쓰고, 실제로 만져보거나 체험해서 알아지는 것은 증득하는 것으로 증證을 써요.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증현,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께서 증득하시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만물愍物의 미지迷之하사. 중생의 미혹함을 불쌍하게 여겨서,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불쌍한 것은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혹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려청자를 모르는 사람은 강아지 밥그릇으로 쓰고, 아는 사람은 그 청자를 사기 위해서 일부러 강아지를 삽니다.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청자를 강아지 밥그

릇으로 쓰고 살면서도 잘났다고 한다면 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도 밝은 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재탄기재再嘆奇哉하시며, 두 차례나 기이함을 탄식하시면서, “기이하다! 왜 가르쳐도 모르냐”고 탄식하셔요. 대중들을 가르쳐도 몇 명만 알아차리고 나머지는 깨닫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이것이 개탄스러운 것이지요.

삼사대사三思大事하사. 일대사를 깊이 생각하시어, 삼사三思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대사의 핵심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생사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의 성인들보다 아는 지식이 많을지도 모르나 근본자리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상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 부처님께서 마음이 이와 같음을 증득하시고 중생이 이것을 모르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재 탄식하시면서 깊이 일대사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既全十力하사 能摧樹下魔軍하시며 爰起四心하사 欲示宅中寶藏이여신마난

이미 십력을 온전히 하여 나무 아래에서 마군을 꺾고 이에 사심을 일으켜 집 속의 보장을 보이고자 하였다.

기전십력既全十力하사. 이미 열 가지 능력을 완전히 갖추시어, 이 열 가지 능력은 부처님만 갖추신 지혜 능력으로, 1 도리에 계합하고 못함을 분명히 아는 지력(처비처지력), 2 어떤 업인으로 인해 어떤 과보를 받을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지력(업이숙지력), 3 모든 선과 해탈 삼매를 아는 지력(선정 해탈지력), 4 중생의 근기와 성품이 상하가 같지 않고 득과가 크고 작음을 명백히 아는 지력(근상하지력), 5 중생들의 가지가지 원이나 바깥 경계에 대하여 품고 있는 견해를 밝게 아는 지력

(종종승해지력), 6 중생들의 여러 성질을 다 아는 지력(종종계지력), 7 모든 업행은 반드시 제 결과에 나아간다는 것을 아는 지력(변취행지력), 8 지난 세상의 일을 모두 기억함에 따라 아는 지력(숙주수념지력), 9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와 지난 세상일을 다 아는 지력(숙주생사지력), 10 모든 번뇌를 끊고 여실히 이치를 아는 지력(누진지력)입니다.

능최수하마군能摧樹下魔軍하시며, 능히 나무 아래에서 마군을 꺾으시고, 팔상도 가운데 수하항마상의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실 때 수 없는 마구니들이 부처님을 공격하잖아요? 왜 그렇게 부처님을 공격했을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당시 인도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고 귀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인도는 지금도 계급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2500여 년 전에 이미 평등을 말씀하셨으니 왕족 바라문들은 물론이요 마구니들까지도 부처님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원기사심爰起四心하사 욕시택중보장欲示宅中寶藏이여신마난. 이에 사심을 일으켜서 마음속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원뜻은 발어사료이여의 뜻입니다. 사심四心은 지혜심 즉 아녹다라 삼막삼보리이고, 상대에 따라 가지가지 방편으로 설하시는 방편심, 그리고 장애가 없는 무장심, 내일이 오늘보다 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승진심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이미 깨달으신 보배 비밀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이미 열 가지 힘을 온전히 갖추시고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시면서 마군을 꺾으시고 이에 사심四心を 일으켜서 마음속에 감춰진 보물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의료광고 의료광고심의필 제 141212-중-66396호

아이리움안과의원
강남센터빌딩 7층

강남역 2번 출구 지하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료내용

백내장 수술

노안교정

라식·라섹 수술

렌즈삽입술

보여주는 안과

EYE REUM 아이리움안과의원

아이리움안과의원 과 상담하세요.

상담·예약 | 02)3420-2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7층 아이리움안과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년을 위해



사무장 / 법련화

혜거 큰스님의 가르침으로 금강선원과 인연을 맺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면서 부족함이 많은 저 자신을 깨달아가며 혜거 큰스님의 크나 큰 원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큰스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온 지금, 또 다시 큰스님의 부르심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 미흡함이 많은 제가 1년 동안 금강선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제가 선원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마음을 다 하리라는 원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은 단 한가지 뿐입니다. 선원을 사랑하고 혜거 큰스님의 가르침을 배우시는 거사님들 보살님들. 이 분들이 앞에서 저를 이끌어주실 것이며 선원을 한 단계 나아가게 해줄 것이고 저희 모든 불

사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그 마음 하나뿐입니다.

금강선원의 발전은 봉사자들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선원을 아끼는 불자님들의 원력이 금강선원을 이끌고 발전시키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처럼 선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성심을 다해 열심히 할 것입니다.

혜거 큰스님의 발원처럼 법당 가득히 도반들이 모여 늘 공부하는 도량, 법당 곳곳마다 금강경이 울려 퍼지는 도량,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금강선원은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 사회에 맞는 수행의 종교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혜거 큰스님께서도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금강선원에 오셔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편안한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금강선원의 대자불사인 화엄경 석경불사에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를 닮는 수행의 시간



前사무장 / 대각심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은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금강선원의 사무장 소임을 아무 준비도 없이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릇으로 이 큰 소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던 걱정조차 무색해지게끔 저를 믿고 아낌없이 도와주신 사무실팀을 비롯하여 모든 봉사자분들, 그리고 선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 주신 보살님들 거사님들 모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로 인해, 28년 동안 단 한번도 명분 없이 쉬지 않았던 선원이 20일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방학아닌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메르스로 인해 편찮으신 선원 봉사자분들이나 불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우려로 임시 방학했던 긴 나날 동안에도 확실한 신심

으로 선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 주셨던 노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1년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해 보겠다는 원을 세우고, 하루하루 하다 보니 한 해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 하루만 잘 지내면 또 내일이 오겠지 라는 마음, 그리고 그날 역시 오늘 하루만이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태어 온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캄캄한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 햇빛이, 그 밝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그 진리를 1년간 맡은 일을 하면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간이었고 자신을 닮는 진정한 수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엄불사에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 직접 오시지는 못하지만 혜거 큰스님의 화엄경 강의를 지방에서 TV로 보고 배우며 화엄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아져 화엄불사가 불 일어나듯이 일어나길 서원하고,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불사의 원이 끝없이 이어지길 기도드리며, 선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올해 새 소임을 맡은 봉사자들이 혜거 큰스님의 크나 크신 원에 동참하여 華嚴滿天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강선원 신 임원진 및 단체장

〈사무실 임원〉

- 고 문 : 불선희, 덕운
- 감 사 : 윤강, 대각심
- 사 무 장 : 법련화
- 총 무 : 선지행, 법장해
- 재 무 : 원명, 적정혜, 자성행, 무진행
- 교 무 : 정건성, 혜량
- 홍 보 : 여여행, 광명안, 무렵화
- 불 사 : 예지행, 자윤심, 진승행
- 요일근무 : 법인행(토) 성도화, 원명주(일)

〈신행부〉

- 신도회장 : 법해
- 만 수 결 : 명원
- 참 선 회 : 불광명
- 자 제 회 : 자성행
- 법 립 회 : 무주행

- 새 신 도 관 리 : 정각화
- 홈페이지 관리 : 윤지행
- 카페운영 및 관리 : 도해

〈법장회〉

- 대 치 1 선 등 : 자윤행
- 대 치 2 선 등 : 광지행
- 일 원 선 등 : 각진심
- 강 북 선 등 : 능행심
- 분 당 선 등 : 진도화
- 32기 불대선등 : 적정화
- 33기 불대선등 : 지혜장
- 34기 불대선등 : 선명화
- 35기 불대선등 : 자심행
- 36기 불대선등 : 선지행
- 37기 불대선등 : 혜안심
- 38기 불대선등 : 윤지행
- 39기 불대선등 : 김나은
- 40기 불대선등 : 유혜자

〈의전부〉

- 의 전 팀 : 법자재
- 과일장업팀 : 현진성

〈문화행사부〉

- 금강경강송대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보리성

〈출판편집부〉

- 신 문 부 : 관응심
- 출 판 부 : 수희심
- 태잎, cd편집 : 본심행
- 태잎, cd제작 : 소천/슬기메
- 동영상촬영 : 자심행

〈특별활동부〉

- 합 창 부 : 보문행
- 서 예 반 : 자재련
- 민 요 반 : 돈연심

- 큰스님한문반 : 리천
- 기 초 한 자 반 : 김연옥/김유미

〈박물관〉

- 부 관 장 : 성안스님
- 운 영 팀 장 : 각연심
- 운 영 과 장 : 범해
- 학 예 사 : 최미금
- 교 육 사 : 강은희
- 박 물 관 원 주 : 견지행
- 박 물 관 방 송 반 : 원광덕, 장엄해, 각화심
- 박 물 관 봉 사 자 : 선혜심



나의 재산 목록 1호는 '화두(話頭)'



문광 | 탄허기념박물관 연구실장

한국종교사에 대해 조금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병겁(病劫)'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남사고, 최제우, 강증산 등은 새로운 시대인 후천개벽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정체를 전염병이 치성하는 병겁의 세월을 겪게 된다고 예언했다.

불교경전인 『대방광 대집경』의 월장분(月藏分)에서도 미륵불이 하생하기 전인 말법시대에는 고약한 전염병이 잇달아 번질 것이라고 하였다.

탄허스님은 김일부의 정역(正易)을 해석하면서 지구촌의 거대한 지진과 해일 등을 역학적(易學的)으로 상술한 바 있다. 복극의 물이 녹고 지축이 바로 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대환란은 지구의 성숙이자 또 다른 결실이라 하였다. 허나 인류의 6할 내지 8할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였으니 빅 카오스(Big Chaos)를 언젠가는 지켜봐야 될 지도 모르겠다.

2004년 서남아시아, 2008년 중국 사천성, 2010년 아이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이어 올해 네팔에서의 대지진과 불의 고리(Ring of Fire) 곳곳에서 들려오는 화산 폭발 소식은 험난한 인류의 미래를 근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대병겁과 대지진 같은 예언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괴담이나 유언비어라면 얼마나 다행이겠나 마는 만일 그것이 우리 앞에 언젠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린 어떠한 정신으로 이를 견어낼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떠올리며 상상하게 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런 일인지도 모르겠다.

현대인은 늘 불안하다. 항상 뭔가를 대비해야 하고 늘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 기댈 곳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믿을 건 돈밖에 없고 돈이 최고라고들 한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돈이라면 뭐든지 팔 수 있다. 우정도 팔고, 의리도 팔고, 지조도 팔고, 양심도 판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가 모르고 사는 세상이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률과 이혼율 1위를 달리면서도 여전히 외물(外物)에서 행복을 찾고 있으며, 서로를 보듬어 주지 못하면서 끝없이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현주소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그 원인을 대대로 내려오던 '마음 닦는 매뉴얼'의 전승이 끊어졌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삼국시대

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국가였으니 당연히 마음 닦는 일이 근본이었을 것이다. 조선조 유교사회에서도 모든 선비는 수신(修身)을 근본에 두었고, 좌선과 거의 동일한 정좌법(靜坐法)과 삼매수련과 거의 유사한 주일무적(主一無適)의 경공부(敬工夫)를 닦아왔다.

한국역사에서 20세기 백년간은 내면의 수련을 버려두고 바깥에서 가치를 추구하기에 바빴던 세월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시간동안 압축적으로 이룩했다고는 하나 마음의 안정과 내면의 평화는 돌보지 못하였다.

『선문염송』에는 '천년지(千年地)에 팔백주(八百主)라는 중국속담이 있다. 천년된 땅에 주인이 팔백 명이나 되더라는 뜻이다. 땅 주인은 땅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다.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법정스님은 '무소유(無所有)는 무언가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했다. 나는 여기에 덧붙여 무소유의 참된 의미를 '무소득(無所得)과 불가득(不可得)을 깨닫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얻을 바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무소유인 것이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마음도 머물 곳이 없는데 하물며 외물들이야 어찌 소유할 수 있겠으며 가질 바가 있겠는가. '나'라는 것 자체가 본래 없는 무아이니 내 것(我所)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 하직하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무심으로 갈 뿐이다. '무심은 모든 부처의 스승(無心毘盧師)'이란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수행은 무심을 증득하는 일이고 그 무심을 얻기 위한 많은 수행법 가운데 나는 화두(話頭)를 선택했다. 해서 나의 재산 목록 1호는 화두(話頭)이다.

기쁜 일이 있어도 화두를 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화두를 들며, 저 사람이 고와도 화두를 들고, 그 사람이 미워도 화두를 든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그저 화두를 들 뿐이다. 최고의 부자가 되는 첩경이 이 화두 드는 데에 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제 정신을 차리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심(安心)과 입명(立命)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21세기는 대혼돈의 시대이기도 하겠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 마음을 되찾는 위대한 시대가 될 것이다.

누가 말법시대를 논하는가. 자성(自性)자리에는 늘 정법(正法)시대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생애 태어나서 가장 잘 한 일이 참선을 배운 일이다. 불역(不樂)호(不樂乎)!

*이 글은 김연의 바리새(바리새) 대적인 청암사에서 발행하는 『가피(경암지) 2015년 여름호(통권 88호)에 실린 '계림(계림)이 참된 재산'이라는 주제로 쓴 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마음 산책 자존감의 수수께끼

운동을 좋아하고 미식축구에 열광하는 미국에서는 이름 있는 축구선수 수가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피츠버그축구팀의 유명한 선수수가 초등학교 아들 둘을 운동캠프에 보냈는데, 참가자 모두에게 주는 트로피를 하나씩 받아 온 것을 주최 측에 반환하는 바람에 뉴스가 된 일이 있었다.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능력과 노력을 갖추지 않아도 무언가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면서 자라는 건 용납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많은 부모들이 블로그에 호응하는 글을 올렸는데, 필자도 이 아버지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최기관은 그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놓는다. 이런 이벤트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을 능력에 따라 구별해서 엄선된 소수에게만 상을 준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캠프에 계속 참가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또 자기가 남들만 못하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을 것이며, 이런 '상처'는 어린이의 자존감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처'들은 정말 자존감에 해를 입히며,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은 자신과 사회에 파괴적인 행동을 할까? 더 근본적으로, 자존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존감은 영어로 self-esteem인데, esteem의 라틴어 어원은 '평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개개인 자신의 여러 가지 면모(예를 들어, 지적능력이나 경제력, 외모, 성격 등)를 평가한 결과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관대하다는 점에 놀라실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수수께끼 같은 평가를 내린다는 연구 결과는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야 의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테니, 자신에 대한 관대한 평가는 인류 생존과 발전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호적인 자기 평가를 하도록 진화했다는 주장도 일리 있게 들린다.

관대한 자기평가가 진화의 산물이 라면, 어떤 상황이 우리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까? 그건 운동 캠프에 가서 트로피를 못 받는 것 보다 소위 '왕따'를 당하는 것이다.

실험실에서 여러 명의 피험자가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그룹 활동에서 계속 제외시킨 뒤 그 사람의 뇌를 검사해보면 실제로 신체적 상처를 입은 사람의 뇌와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뇌 과학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다.

어쩌면 이것은 자존감에 연관된 또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평가'에 기준을 둔 자존감이 실제로는 남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인간이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점이다.

수수께끼라는 표현보다는 '깜짝 발견'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많은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고양시키지 않고 경쟁만 시키는 교육제도가 자존감 결핍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폭력, 마약중독, 등등의 갖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런 사고방식이 결국 참가자에게 모두 트로피를 하나씩 주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이제 아주 고착된 듯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0여 년간의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존감 충전'이 '자존감 결여'보다 폭력적 행동과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존감 결여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문제는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진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과대망상적인 정체성을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흔히 극도의 분노감을 느끼며 적개심에 가득 찬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기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려는 좋은 의도에서 아이의 능력이나 업적을 무조건 과대평가하는데, 이는 위험한 양육방법이라고 본다. 아이에게 따뜻하게 진솔한 평가를 해주면서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현실에 근거를 둔 자존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마도 피츠버그의 아빠 축구선수는 이점을 명심하고 있는 듯하다.

글/ 우태욱(불명·청량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Millersville 주립대 심리학과교수)

묵향을 찾아서 말한다는것이 참으로 어렵다



선화자 작 玄同 700x250mm

서대문 여성 인력개발 센터에서 수개월 전 시작했던 장자 강의가 지난 주에 끝났다. 강의를 시작 할 때 노자 구 [知者不言, 言者不知]를 인용하여 나의 부족함을 매우고 결코 아는 자가 되어 드러내려는 것이 아님을 전했다.

“노자 56장에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상 제가 만난 장자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했듯이 장자를 강의하다 보면 모르는 것이 또렷하게 드러나 장자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봅니다.”

노자 56장 첫 구절은 강의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 나의 알이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짚어보게 하고,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를 조심스럽게 말하라는

경계의 말로 나의 스승이 되어준다. 말이란 어떤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개념화하고 체계화시키는 순간 앞을 떠나버리고 또 다른 모름이 있게 되는 것이리라.

노자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현묘한 도에 함께玄同하기 위해서는 그 감각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닫아걸며,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형클어진 것을 풀며, 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래야 도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 세속의 일과 가까이 붙지 않아 천하의 귀함이 된다는 것이다.

장자 외물편에 ‘득어망전得魚忘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위해 있고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은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말이란 것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포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뜻을 알았으면 말을 잊어버려 그 말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뜻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장자도 道の 뿌리를 찾아가는 데에는 말로 표현된 책이 필요하지만 책은 말에 지나지 않고 말은 뜻을 나타내기 위해 있으며 뜻을 파악하면 그 말까지도 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껍데기뿐인 언어에 매달려 진리의 참맛을 깨달으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이리라.

정말 말과 글이란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이가 더해갈수록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요즈음 말이 절로 줄어든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했듯이 과연 점점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기에 말이 없어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현묘한 도와 하나 되어 세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일까? 말이 미칠 수 없는 자리, 말없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림다.

知者不言, 言者不知, 塞其兌, 閉其門,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是謂玄同. 故不可得而親, 不可得而疎, 不可得而利, 不可得而害, 不可得而貴, 不可得而賤, 故爲天下貴. -《노자》56장-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감각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닫아걸며,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형클어진 것을 풀며, 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과 하나가 되면, 이것을 일러 현묘한 합일(현묘한 도와 함께함) 바로 ‘玄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으니, 이 때문에 천하에 귀함이 되는 것이다.

글 / 南州 宣花子(서예가) 대한민국 미술협회 초대작가

2015 나의 하안거

“참선을 꼭 해보아야 한다.”는 헤거 큰스님의 가르침에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한 기초참선이 어느덧 저에게는 3년이 되었습니다.

참선을 시작할 때 ‘한 장 방석 위에 몸과 마음을 묶어보는 수행을 해보자.’ 라는 소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설피고 낯설어서 30분조차 견디기 힘들었고, 일상의 잡념과 망상에 사로잡혀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참선을 거듭할수록 나도 모르게 평온해짐을 느끼기 시작했고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참선에도 익숙해졌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금증이 생기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선할 때 일상의 번민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세상에 대한 미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평온함도 가끔 느낄 수 있기에 나름 뿌듯합니다.

올해 하안거 기간에 집 근처 병원(평택)에서 시작된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든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나라가 시끄러워 선원에 갈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문

에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참선을 했고, 남편의 건강 문제로 걱정도 많았지만 나름 소박한 마음을 담은 참선은 좋은 결실로 이어져 편안해졌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안거 해제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발심하여 정진할 것이며, 평생의 수행이라 생각하고 참선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참선에 대한 처음의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을 걷어내고 제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마음의 평화와 도반들의 귀한 경험도 함께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2015년 하안거 참선수행을 하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선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무엇인가 부푼 마음에 흥얼거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흡한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법문을 통해 인간의 우매함과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신 헤거 큰스님 그리고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다정다감한 도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글 / 지안심(참선반 총무)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야보송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탄허사상특강 매주(일)
▶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선하불교대학 매주(월) 오전10시 30분
성인기초참선 매주(수) 오후19시 00분
청년불교대학 매주(토) 오후14시 00분
청소년기초참선 7월18일~9월6일 8주(토일 오후 2시)
어린이명상학교 매주(일) 오전10시 30분
청소년 1년 집중행차과정 5월2일~12월 5일(토)오후2시

문화특강 안내

수요한문반 매주(수) 오후 2시
기초한자반 매주(금) 오후 1시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민요반 매주(금) 오후 1시

기도 안내

일년기도, 인등기도, 초하루기도, 초삼일기도
보름기도, 지장재일기도, 백중기도, 신년3일
기도, 신년천도재, 입춘기도, 소원성취기도(수
능백일 및 각종 축원, 21일 소원성취기도, 각
종 백일기도)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큰스님 동정

8/07(금) 상담개발원 명상지도자팀
간화선 법문2차(6시30분 금강선원)
8/11(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자문위원회 회의 (2시 포교원)
8/18(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자문위원회 회의 (2시 포교원)

선원 일정(8.26~9.27)

8/26(수) 백중7일기도
8/27(목) 백중7일기도
승려연수교육(임제록)
합창부 녹화(BTN)
8/28(금) 백중7일기도 회향
하안거 해제
8/29(토)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박물관)
제3기 청소년 명상 지도자과정(박물관)
8/30(일) 일요순례법회(해인사)
청소년 참선 심화반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박물관)
8/31(월) 지장재일 위패8차 봉안식
9/02(수) 수요법회(금강경야보송 22강)
맹자진심장
9/03(목) 승려연수교육(임제록)
9/04(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11강)
기초한자반 개강
9/05(토)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박물관)
제3기 청소년 명상 지도자과정(박물관)
9/06(일)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 44강)
청소년 참선 심화반
제10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 수료식(박물관)
제3기 청소년 명상 지도자과정 수료식(박물관)
9/09(수) 수요법회(금강경야보송 23강)
제27기 성인기초참선 개강(아간반)

맹자진심장
9/10(목) 승려연수교육(임제록)
9/11(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12강)
금강선원운영위원회 회의
기초한자반
9/13(일) 초하루기도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 45강)
청소년 참선 심화반
9/16(수) 수요법회(금강경야보송 24강)
제27기 성인기초참선(아간반)
맹자진심장
9/17(목) 승려연수교육(임제록)
9/18(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 13강)
기초한자반
9/20(일)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 46강)
9/23(수) 수요법회(금강경야보송 25강)
제27기 성인기초참선(아간반)
맹자진심장
9/24(목) 승려연수교육(임제록 중강)
9/25(금) 문광스님 특강
9/26(토) 금강경독송집중정진
9/27(일) 추석합동차례

해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야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55위.....12개
반야심경.....4개
아마천궁게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해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야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 ...15장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시 금 | 천연등회팀 이해재 강복선등
보 시 물 | 장기팔 권순민 유재우 동명한의원 박지민 맹정호 신영아 김완기
백중보시 | 남광희 정건심 이상은 환희지 자재회 원연숙 신동훈 능지행 이제욱 최현우 황영길 법인행 오춘근 정순천
대중공양 | 정인채 김민성 조정연 장영옥
금강경강송대회 보시금 | 금강경목요독송반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구 좌 동 참

1 - 7 6 3 엄 주 영
1 - 7 6 4 신 은 정
1 - 7 6 5 최 형 순
1 - 7 6 6 나 해 리
1 - 7 6 7 최 순 영
1 - 7 6 8 김 남 주
1 - 7 6 9 김 상 현
1 - 7 7 0 이 응 현
1 - 7 7 1 윤 현 숙
1 - 7 7 2 이 지 연
1 - 7 7 3 이 규 석

1 - 7 7 4 유 채 아
1 - 7 7 5 조 점 세
1 - 7 7 6 김 창 래
1 - 7 7 7 김 명 숙
1 - 7 7 8 김 덕 열
1 - 7 7 9 김 유 열
1 - 7 8 0 목 영 규
1 - 7 8 1 공 정 애
1 - 7 8 2 김 애 년
1 - 7 8 3 김 병 우
1 - 7 8 5 한 무 희
1 - 7 8 6 석 정 훈
1 - 7 8 7 석 정 열
1 - 7 9 0 우 동 균

1 - 7 9 1 이 준 영
1 - 7 9 2 한 준 희
1 - 7 9 3 강 서 빈
1 - 7 9 4 이 승 목
1 - 7 9 5 김 한 규
1 - 7 9 6 손 영 범
1 - 7 9 7 14년법장일동
1 - 7 9 8 김 도 균
1 - 7 9 9 류 치 영
1 - 8 0 0 이 상 익
1 - 8 0 1 이 은 경
1 - 8 0 2 이 미 혜
1 - 8 0 3 윤 문 자
1 - 8 0 5 최 병 준

1 - 8 0 9 정 태 향
1 - 8 1 0 우 광 자
1 - 8 1 1 고 병 후
1-812~818 유 창 규
1 - 8 1 9 정 해 경
1 - 8 2 0 유 우 진
1 - 8 2 1 유 진 성
1 - 8 2 2 주 미 연
1 - 8 2 3 김 희 성
1 - 8 2 4 이 진 섭
1 - 8 2 5 성 윤 선
1 - 8 2 6 성 제 현
1 - 8 2 7 이 진 일
1 - 8 2 8 이 민 주

1 - 8 2 9 이 진 호
1 - 8 3 3 양 재 금
1 - 8 3 4 이 상 규
1 - 8 3 5 도 미 옥
1 - 8 3 6 이 충 호
1-784 박정제 영가
1-788 우두형 영가
1-789 황순임 영가
1-804 네팔지진참사 영가



永久위패 봉안 동참

일반 영구 위패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위패191 신청인 박정숙/ 봉안인 남정배 영가

위패192 신청인 정행자/ 봉안인 은치석 신창옥 영가

위패193 신청인 정행자/ 봉안인 은성해 김진균 영가

제5회

금강경 강송대회

2015년 10월 17일 (토)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탄허대종사의 눈으로, 좋은 책 『금강경』 읽기 프로그램

국태민안을 발원하던 유구한 민족문화인 경전강송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참 뜻을
널리 펼쳐 보살사상 실천과 만일수행결사운동의 보급에 이바지할
금강경 강송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응시자격** 성인 일반부
학생부 : 초, 중, 고등, 대학생 (학생증 첨부)
- 응시부문** 개인전 : 외워 쓰기, 암송
단체전 : 합송 *개인전과 단체전에 중복 응시 가능
수행수기
- 접수기간** 원서접수 : 2015년 7월 1일 ~ 9월 30일 (선착순 접수)
- 지원서** 소정 양식(우편 접수 시 사진 3x4 부착)
※ 지원서 다운로드 : 탄허기념박물관,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금강선원 다음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형료** 개인, 단체 : 3만원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28-878838 대한불교조계종금강선원
단, 학생은 무료 (학생증 제출), 수행수기 부분만 무료.
- 접수방법** 1. 방문 및 우편 접수 : 금강선원, 탄허기념박물관
• 금강선원 : 서울 강남구 개포로 82길 11(개포2동 186-3) 삼우빌딩 4층
TEL: 02) 445-8484 / FAX: 02) 445-8034
• 탄허기념박물관 :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4길 13- 51
TEL: 02) 445-8486 / FAX: 02) 445-8481
2. E-mail 접수 : keumgang-sw@hanmail.net
- 대회상금** 성인 일반부 : 대상 1,000만원
금상 300만원 | 은상 200만원 | 동상 100만원
학생부 : 최우수상 100만원 | 우수상 30만원 | 장려상 20만원
단체전 : 단체상 100만원(3팀)
*각 부문에 특별상 수여.

- 시험 유형 및 출제**
- 개인전** 필기 : 금강경 32분 중 지정분 (당일 공개 추첨) 외워 쓰기
학생부 (초, 중, 고등, 대학생) 지정분 : 1분, 7분, 12분, 17분, 31분
대학생의 경우 성인 일반부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 교재 - 금강선원 발행 『금강경독송집』, 조계종 표준본
강송 : 암송, 운음, 소리 크기
※ 한자 필기시 가산점 부여
결선은 1차 심사 후 질의응답으로 최종 순위 평가
- 단체전** 팀 인원 : 5명 이상
합송 : 지정분(접수시 지정분 배부)과 자유분(팀별 자유선택)
※ 전체 합송시간 : 3분 이내 -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대회일정** 08:30 입실 완료
8:30~09:00 식전 의전, 필기 분 공개 추첨
1교시(09:00~09:50) <개인전> 외워쓰기
2교시(10:10~12:00) <개인전> 강송(암송)
점심시간 (12:00~13:00)
3교시 (13:00~14:10) <단체전> 단체 합송
4교시 (14:20~15:10) <개인전> 결선
15:20 이후~ 결과발표 및 시상식 / 수행수기 발표 / 순당의례

※ 제세공과금(22%)는 본인부담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방이나 원거리 참가자 중 희망하시는 분은 선원에서 숙박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기타 상세한 문의는 금강선원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02)445-8484로 받습니다.

주최 오대산 월정사, BTN 불교TV, 불교신문, 금강선원 주관 탄허불교문화재단, 탄허기념박물관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서울시, BBS불교방송